

# 확실/불확실 과제 수행에서 다수와 소수의 영향

정지숙·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에 관한 단일과정이론과 이중과정이론의 타당성을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연구에서는 4개의 가상적 집단문제해결 상황을 설정하여 180명에게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에 관한 영향상황, 영향원인, 영향행동을 자유반응케 하고, 이를 상황의 확실성/불확실성의 수준에서 각각 분석했다. 실험연구에서는 집단토의가 예견된 상황에서 112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과제유형(확실성/불확실성), 영향원유형(다수/동수/소수/통제), 반응유형(공적 반응/사적반응)의 요인설계에서 반응유형을 반복측정한 2\*4\*2(2) 혼합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조사연구로부터 다수영향에서는 규범적 영향상황, 비교과정에 의한 영향원인, 통제적인 영향행동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소수영향에서는 정보적 영향상황, 타당화과정에 의한 영향원인, 혁신적인 영향행동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 영향원과의 의견 차이를 중속변인으로 측정된 결과,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통제조건보다는 소수가 영향력이 컸다. 또한 다수와 소수간에는 영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영향력의 크기는 다수, 소수, 반수의 순으로서 단일과정이론이 지지되지 않았다. 확실과제의 수행상황과는 달리 불확실과제의 수행상황에서는 공적반응에서 다수가 통제나 동수보다 사회적 영향이 유의하게 컸으나, 사적반응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유의하게 통제조건보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소수영향과 다수영향에 대한 단일과정이론이 지지되지 않았으며, 소수영향은 불확실상황에서만 사적반응을 더 많이 일으킴으로써 이중과정이론이 불확실상황에서 지지되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행동, 의견, 감정,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회적 영향이라고 한다(Moscovici, 1985). 사회적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서 동조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Asch, 1951; Sherif, 1935; Festinger, 1951). 그러나 Moscovici(1976)는 역사적으로 집단이나 사회가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변화되고 혁신되어 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수는 사회적 영향의 대상인 동시에 영향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집단내에서 다수-소수의 양방향적 영향 과정에 착안케 한 점에서 공헌했다(한덕웅, 1990). 그런데 소수영향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간에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이 영향원 수

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동일한 과정이라는 단일과정 모형(Latane & Wolf, 1981)과 두 영향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발휘된다는 이중과정모형(Moscovici, 1980)이 대립하게 되었다.

단일과정모형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세력에 의한 의존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의존성에 의한 영향력을 영향원의 수와 함수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 세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 첫째, Latane와 Wolf(1981)가 제안한 사회충격이론(social impact theory)에서는 영향원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력 증가는 점진적으로 가중치가 줄어드는 멱함수(power function)관계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둘째, Tanford와 Penrod(1984)의 사회영향모형(social influence

model)은 영향원의 수가 3명일 때까지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네번째부터는 증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Gompert의 S자형 증가곡선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Mullen(1983)의 전체에 대한 상대편의 비율모델(the other-total ratio model)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전체집단에서 영향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Mullen, 1985). 이 세 단일과정 모형들에서 영향원의 수와 영향력간의 함수관계를 서로 달리 나타내기는 하지만, 영향원의 크기 순서대로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하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된다.

한편, 이중과정모형에 따르면,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다수영향은 자신의 의견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겉으로만 다수 의견에 따르는 공적수준에서의 사회적 영향이고, 소수 영향은 외부 압력에 의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속으로만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사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이중과정이론에서 다수영향은 공적반응이며 소수영향은 사적반응이라는 근거는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Moscovici(1976)는 '갈등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수영향은 다수와 불일치하는데서 유발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가 선호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비교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적순종이며, 소수영향은 소수의 불일치하는 주장이 다수에게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다수로 하여금 소수의 주장을 재검토하게 하는 타당화과정을 통한 사적수용이라고 본다. 두번째로, Mugny(1982)는 동기적인 요인과 심리적 정체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다수와 불일치하는 소수는 자신을 외집단구성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공적으로나마 다수 의견을 따르고자 하지만, 소수와 불일치하는 다수는 자신들을 내집단구성원이라고 인식하므로 일탈자로서의 부적 이미지를 갖는 소수 의견을 따르게 되었을때는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변화를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세번째로, Nemeth(1986)는 주의집중과 사고양식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다수영향에서는 다수 압력이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Maass & Clark, 1984; Nemeth, 1976; Nemeth & Wachtler, 1983) 인지적 활동이 낮은 피상적 정보처리수준에서 수렴적 사고

를 하기 때문에 공적 순종이 나타난다. 반면에 소수영향에서는 소수의 불일치가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 인지적 활동이 활발한 심층적 정보처리 수준에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확산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적 수용이 나타난다(Nemeth, 1974; Nemeth, & Wachtler, 1983).

이상에서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에 관한 단일과정이론과 이중과정이론을 살펴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중과정이론의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 먼저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영향과정에서의 규범적과 정보적영향, 비교과정과 타당화과정 및 통제적 행동과 혁신적 행동이 각각 다수와 소수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된다. 다음으로 소수영향과 다수영향이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두 과제의 수행 조건하에서 다수와 소수가 공적 동조나 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이중과정이론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연구 결과에서 얻은 영향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실험연구에서는 상황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의해서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 조사연구 ; 다수와 소수의 영향원인, 영향상황, 영향행동효과

단일과정이론과 이중과정이론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별도로 연구하였으므로 이 두 영향에 대한 설명기제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우선 조사연구를 통해 두 영향에 작용하는 심리적인 기제를 추론하여 두 이론의 설명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과정이론보다 이 두 영향을 구분하여 질적 차이로 설명하는 이중과정이론에 근거하여 이 이론에서 도출된 예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규범적 영향은 소수영향에서보다 다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정보적 영향은 다수영향에서보다 소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비교과정은 소수영향보다 다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나지만, 타당화 과정은 다수영향보다 소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통제적인 행동은 소수영향보다 다수영향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할 것이지만, 혁신적인 행동은 다수영향보다 소수영향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영향원 2조건(다수영향/소수영향) \* 4종류의 과제(무인도/수술비/해외여행/성적평가)이고 연구대상은 평균 관대 40명, 대구대 40명, 충남대 100명으로 모두 180명에 대해 개방형 대답을 작성토록 하였다.

### 2. 독립 변인 조작

- ① 영향원: 다수영향 조건에서는 2명이 8명의 의견을 따랐고, 소수영향조건에서는 8명이 2명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였다.
- ② 실험과제: “무인도에서의 생활 논쟁”, “수술비 마련을 위한 갈등”, “해외여행에 관한 찬반 토의”,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의 성적평가에 관한 토의”의 4가지 과제.

### 3. 종속 변인 측정

다수나 소수의 의견에 따른 조건 각각에서 사회적 영향을 유발시킨 영향원인, 영향상황, 행동양식을 각각 세개씩 적도록 한 자료를 두 명의 대학원생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하여 일치된 결과를 통계처리하였다. 분류자간 Crombach 일치도계수는, 영향상황의 52개 항목에 대해 CR=.89, 영향원인의 42개 항목에 대해 CR=.82, 영향행동의 27개 항목에 대해 CR=.85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류자간의 범주항목에 대한 일치도계수는 영향상황의 12개 범주에 대해 CR=.88, 영향원인의 7개 범주에 대해 CR=.74, 영향행동의 6개 범주에 대해 CR=.78이었다.

## 결과 및 논의

다수 및 소수의 의견에 따른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영향상황, 원인, 및 행동적 특징별로 분석했다.

### 1. 다수/소수의 영향 상황 분석<표 1>

규범적 영향은 소수영향(36%)에서보다 다수영향(64%)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정보적 영향에서는

<표 1>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로 본 소수/다수영향의 빈도(%)

영향유형	상황의 내용	소 수	다 수	전 체
규범적 영향	집단압력이 작용하는 상황	19(29)	47(71)	66(100)
	순적으로 우세한 상황	0(0)	70(100)	70(100)
	세력이 발휘되는 상황	65(81)	15(19)	80(100)
	집단응집성이 작용하는 상황	10(22)	35(78)	45(100)
	안정된 상황	1(6)	15(94)	16(100)
	긴박한 상황	26(46)	30(54)	56(100)
	<소 계>	121(36)	212(64)	333(100)
정보적 영향	개인특성이 돋보이는 상황	5(63)	3(38)	8(100)
	의견이 타당한 상황	260(61)	164(39)	424(100)
	행동양식이 나타나는 상황	48(82)	12(20)	60(100)
	개입된 상황	29(64)	16(36)	45(100)
	비관여된 상황	14(54)	12(46)	26(100)
	불확실한 상황	41(32)	89(68)	130(100)
	<소 계>	397(57)	296(43)	693(100)
전 체	518(50)	509(50)	1027(100)	

다수영향(27%)에서보다 소수영향(57%)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므로( $\chi(1)^2=39.49, p<.001$ ), <가설 I-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Wolf(1979), Doms & Van Avermaet(1982), Moscovici(1980), Moscovici(1980)와 Nemeth(1983)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한다.

12개 상황내용 각각에 대한 소수-다수영향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수영향이 다수영향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영향 상황은 「세력이 작용하는 상황」(81%), 「의견이 타당한 상황」(61%), 「행동양식이 발휘되는 상황」(80%)이고, 다수영향이 소수영향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인 상황은 「집단압력이 작용하는 상황」(70%), 「숫적으로 우세한 상황」(100%), 「집단응집력이 작용하는 상황」(78%), 「안정된 상황」(94%), 및 「불확실한 상황」(68%)이었다( $\chi(11)^2=204.94, p<.001$ ). 새로운 발견은, 다수영향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보적 영향이 많이 나타났으며, 「세력이 작용하는 상황」의 규범적 영향에서는 소수영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소수영향과 다수영향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 중이중과정이론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만, 부분적으로는 소수영향에서 규범적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며 다수영향에서 정보적 영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다수/소수의 영향 원인 분석<표 2>

비교과정에서는 다수영향(83%)이 소수영향(17%)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였지만, 타당화과정을 보면 소수영향(59%)이 다수영향(41%)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chi(1)^2=119.34, p<.001$ ). 따라서 <가설 I-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oscovici와 Lage의 연구(1976)와 일치한다. 또한 「영향원의 자신감 때문」(92%), 「영향원의 유능성 때문」(62%), 「영향원의 세력 때문」(80%)은 소수영향에서 더 많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피하기 위해」(78%), 「사회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96%)는 다수영향에서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chi(6)^2=168.17, p<.001$ ). 영향원인에서도 비교과정 중 「세력 때문」이라는 반응이 다수영향보다 소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가 다수는 세력이 있고 소수는 세력이 없는 대립관계를 많이 다루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결과는 세력이나 다수 및 소수의 영향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야함을 시사한다(한덕웅, 1991, p.48). 오킨대 부분적으로 이중과정이론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다수영향이 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수영향이 타당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중과정이론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지지해 준다.

## 3. 다수/소수의 영향행동 분석<표 3>

다수영향에서는 혁신적 행동(20%)보다 통제적 행동(80%)이 더 많이 나타나고, 소수영향에서는 통제적 행동(40%)보다 혁신적 행동(60%)이 더 많이 나타났다( $\chi(1)^2=72.06, p<0.001$ ). 그러므로 <가설 I-3>은 지지되었다. 이는 Wolf(1979)연구 및 Moscovici(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2> 비교과정과 타당화과정으로 본 소수/다수영향의 빈도(%)

원인유형	원인내용	소 수	다 수	전 체
비교과정	집단배척을 피하기 위해	19(22)	66(78)	85(100)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5(4)	111(96)	116(100)
	사회적 지지때문에	5(36)	9(64)	14(100)
	영향원의 세력 때문에	12(80)	3(20)	15(100)
	<소 계>	41(18)	189(82)	230(100)
타당화과정	영향원의 확실성 때문에	155(53)	137(47)	292(100)
	영향원의 자신감 때문에	22(92)	2(8)	24(100)
	영향원의 유능성 때문에	226(62)	139(38)	365(100)
	<소 계>	403(59)	278(41)	681(100)
전 체		444(49)	467(51)	911(100)

<표 3> 통제적 행동과 혁신적 행동으로 본 소수/다수 영향의 빈도(%)

행동유형	행동내용	소 수	다 수	전 체
통제적 행동	지배적인 행동	5(71)	2(29)	7(100)
	확실적인 행동	23(15)	126(85)	149(100)
	배타적인 행동	8(33)	16(67)	24(100)
	<소 계>	36(20)	144(80)	180(100)
혁신적 행동	융통적인 행동	240(54)	201(46)	441(100)
	일관적인 행동	69(59)	47(41)	116(100)
	경직된 행동	34(60)	23(40)	58(100)
	<소 계>	347(56)	271(44)	615(100)
전 체	379(48)	415(52)	795(100)	

6개의 행동내용 각각에 대한 소수/다수영향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관적인 행동」(85%)과 「경직된 행동」(60%)은 소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확실적인 행동」과 「배타적인 행동」(67%)은 다수영향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통제적 행동 중에서 「지배적인 행동」(71%)은 소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chi(5)^2=83.88, p<.001$ ). 즉, 다수영향에서 나타난 「확실성」과 「배타성」은 집단통합을 위해 일탈자를 막고자 하는 통제력 발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수영향에서 나타난 「일관성」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단 규범에 도전함으로써 집단규범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영향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일과정이론보다 다수는 통제적 행동으로 영향을 발휘하며 소수는 혁신적 행동으로 영향을 발휘한다는 이중과정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4. 과제유형에 따른 다수와 소수의 영향 <표 4>

앞에서 다수와 소수의 영향들 가운데 사회상황 요인들을 원인으로 기술한 내용들을 빈도 분석한 결과, 정 보적 영향에서 소수(57%) 영향에 못지 않게 다수(43%)의 영향도 높아서 양자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네 과제별로 세분해 보았을때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이 두 유형의 과제로 나타낸 상황을 Duncan(1972)의 사회환경의 불확실성의 3가지 기준들인 ① 의사결정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함 및 ③ 성공/실패에 대한 확신감 부족에 근거하여 분류해보면, 무인도와 수술비마련의 과제들은 불확실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반면에 해외여행과 성적평가는 확실 상황으로 특징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두 상황으로 구분지어 영향 원인에 대한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의 효과를 분석하면 두드러진 점이 발견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과정은 불확실성(82%)과 확실성(83%)상황 모두에서 다수영향의 영향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타당화과정은 불확실 상황에서만 다수영향(37%)보다 소수영향(63%)의 영향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chi(1)^2=2.68, p<.05$ ). 이는 다수의 숫적 크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상황과 불확실상황 모두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이러한 다수의 주장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비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설득시킨 조건을 보면, 다수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불확실상황에서만 소수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표 4> 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원인과 영향행동별 소수/다수의 빈도(%)

		불확실한 환경			확실한 환경		
		소 수	다 수	소 계	소 수	다 수	소 계
영향원인	비교 과정	22(18)	97(82)	119(100)	19(17)	92(83)	111(100)
	타당화과정	216(63)	128(37)	344(100)	187(55)	150(45)	337(100)
	전 체	238(49)	225(51)	463(100)	206(46)	242(54)	448(100)
영향행동	통제적행동	27(24)	84(76)	111(100)	9(13)	60(87)	69(100)
	혁신적행동	158(58)	113(42)	271(100)	185(53)	158(47)	348(100)
	전 체	379(48)	415(52)	794(100)	185(47)	197(53)	382(100)

또한 통제적 행동은 불확실(75%)과 확실(87%) 상황 모두에서 다수영향의 영향 행동으로 우세했지만, 혁신적 행동은 불확실 상황(58%)에서만 소수영향의 영향 행동으로 나타났다( $\chi(1)^2=38.55, p<0.001$ ). 이 또한 다수의 세력에 의한 통제적 행동은 확실과 불확실 상황에 관계없이 작용하고 있지만, 소수의 혁신적 행동은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상황에서만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다수영향에서는 규범적 영향상황, 비교과정의 영향원인, 통제적 영향행동이 작용하며, 소수영향에서는 정보적 영향상황, 타당화과정의 영향원인, 혁신적 영향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과정이 작용함을 보이는 결과로서 단일과정이론보다는 이중과정이론이 더 타당함을 지지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제가 나타내는 상황별 특징으로 보면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따라서 영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수의 영향은 상황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세한 영향 원인이었다. 그러나, 불확실 상황에서만 소수가 다수보다 타당화과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본 조사연구에서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두 측면에서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영향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는데, 이 결과가 다른 조건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를 실험으로 다루고자 한다.

### 실험연구 ; 확실성 수준에 따른 영향원의 공적/사적반응

조사연구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 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확실과 불확실 상황을 설정하여 이중과정이론과 단일과정이론의 논쟁점인 영향원의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실험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과제를 다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접근법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험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에서 소수와 다수의 영향과정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소수와 다수의 영향과정을 각각 이해하는데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나 다수의 영향과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하고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과정이 다수나 소수가 아닌 집단에서의 영향과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통제조건 및 반수영향 조건과 비교하여 다수나 소수의 영향과정을 파악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제나 반수영향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직접 비교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자료로서 소수의 영향력 크기나 영향과정의 질적 차이가 실제로 어떤 조건과 비교했을때 유의한 수준에 이르는지를 독립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수와 소수의 영향이 문제로 삼아지는 현실적 상황 가운데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받는 집단상황에서 문제에 관한 토의나 결정이 함축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단순히 다수나 소수의 영향하에서 나타나는 개인 반응만을 문제 삼아서는 이와같은 현실 상황에 적합한 영향과정을 다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하에 있는 개인이 과제수행후에 정답에 관해 집단토의를 예견하는 상황에서 다수나 소수의 영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는 반응하게 되는지를 다루게 된다.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함께 받는 상황을 다루기에는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동조와 소수영향에 관한 대다수 연구에서 다수가 정당하지 않은 틀린 주장을 하거나, 다수와 대비되게 정당하거나 맞는 주장을 하는 소수의 영향을 다름으로써, 다수/소수와 정/오 혹은 주장의 정당성에 따른 영향이 혼입된 경우가 많았다(한덕용, 1991, p.48). 또한 다수의 세력이 크고 소수가 세력이 작다고 가정된 경우도 많았다. 이 실험에서는 동일 세력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다수나 소수의 주장이 항상 틀린 내용으로 고정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다룬다.

넷째,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공적 동조반응과 사적 태도변화를 함께 다루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조건내에서의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다섯째, 확실상황과 불확실상황에 관한 문제는 Sherif(1935)와 Asch(1951)의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Sherif(1935)는 자동운동 효과를 사용하여 불확실상황에서의 동조현상을 연구하였고, Asch(1956)는 선분길이 과제를 사용하여 확실상황에서의 동조현상을 밝혔다. 그런데 Sherif의 실험에서는 인지적 변화에 의한 공적순종이 나타났다(Festinger,

1953). 이는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서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이 달라짐을 의미하는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다수영향의 공적반응과 소수영향의 사적반응만을 규명하려고 하였을뿐 상황특성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일한 실험설계내에서 확실/불확실 상황을 설정하여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가지 점을 고려하여 실험상황은 Asch(1955, 1956) 실험방략을 수정한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즉, 집단으로서 토의하는 과정이 예견된 상황에서 통제, 소수, 반수 및 다수의 영향을 받게되면 개인이 각각 어떤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을 나타내는지 알아 보게 된다.

이 실험의 기본 가설은 (1) 집단토의가 예견된 상황에서 타인의 반응을 알지 못해 타인의 영향이 극소화된 통제집단에 비해서 소수집단의 영향이 유의하다는 가설과 (2) 이중과정이론의 기본 가설에 근거해서 정답이 있으나 과제 해답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서로 다른 두 조건에서 다수와 소수의 공적 및 사적반응에 대한 영향이 각각 달리 나타나리라는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중과정이론과 조사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실험연구의 예언들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예언 I : (소수 및 다수의 영향력) : 집단토의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불확실 과제에 관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다수나 소수가 타인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 II : (상황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 과제의 수행상황이 확실한 조건에서 보다 불확실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예언 III : (상황에 따른 영향원 크기의 효과) : 확실/불확실한 과제의 수행상황에 따라서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즉, 확실한 과제의 수행상황과는 달리 불확실한 과제의 수행상황에서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차이가 현저할 것이다.

예언 IV :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의 차이) : 사적반응을 할 경우보다 공적반응을 할 때 영향원의 크기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언 V : (상황, 영향원 크기 및 반응유형의 상호작용) :

확실한 과제의 수행 조건하에서는 공적반응이나 사적반응 모두에서 모두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불확실한 과제의 수행 조건하에서는 영향원의 규모가 클수록 공적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사적반응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언 VI : (단일과정이론의 검증) :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확실/불확실 과제의 수행상황과 공적/사적인 반응양식에 따라서 서로 다르므로 영향력이 통제, 소수, 반수, 다수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연구방법

### 1. 실험절차

피험자에게 지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라고 알려주고 2번의 간단한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피험자 자신의 성명, 소속학과, 학년 및 실험상황에서의 반응이 자신보다 앞서 실험했다고 알려준 다른 위장 피험자들의 반응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2번의 시행(공적반응)과 신분이나 반응이 공개되지 않는 2번의 시행(사적반응)을 신호탐지과제로 실시한 뒤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습과제 후 본 실험이 실시되기에 앞서서 실험이 끝난 후에 곧 7명이 모두 한방에 모여 집단토의를 거쳐서 집단으로 정답을 결정한다고 알려주어 집단토의를 예기케 하였으나, 실제로 집단토의는 실시하지 않았다.

### 2. 실험설계

영향원 4수준(다수/반수/소수/통제) \* 과제 2수준(확실성상황/불확실성상황) \* 반응유형 2수준(공적반응/사적반응)의 요인설계에서 반응유형을 반복측정한 4\*2 \* (2) 완전혼합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 3. 피험자

성균관대생 112명을 선정하여 조건당 14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 4. 독립변인 조작

- ① 영향원유형(다수/소수)조작: 다수영향원 조작은 4명의 오답 주장, 소수 영향원 조작은 2명의 오답 주장, 반수영향원 조작은 3명의 오답 주장으로 조작하였다. 즉, 다수, 반수, 소수의 주장이 순서대로 6명 가운데 67%, 50%, 33%에 의해서 각각 나타난 것으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은 다른 사람들의 신분명세는 있으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영향원들의 반응은 발생된 표적문자수의 정답이 12개인 경우 각각 1, 2, 3개 가운데 어느 숫자를 적어서 평균이 2가 되도록, 그리고 정답이 2개인 경우는 11, 12, 13 가운데 어느 숫자를 적어주어서 평균이 12가 되도록 했다. 모든 피험자에게 오답이 2 및 12로 된 2회 시행을 반복 실시했다.
- ② 과제유형(확실성/불확실성)조작: 확실성 상황은 배경문자 "X"중에 목표 문자 "O"의 수를 알아내야 하고, 불확실성 상황은 난도가 높은 과제로서 배경문자 "U" 중에서 목표문자 "V"를 찾아서 그 수자를 적는 과제였다. 화면에 발생한 문자수는 모두 100개였는데, 이 문자가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초였다.
- ③ 반응유형(공적반응/사적반응)조작: 공적조건은 영향원과 피험자의 이름과 반응을 화면에 제시하는 것으로, 사적조건은 이를 화면에 삭제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 5. 종속변인의 측정

- ① 영향원 주장과의 차이 정도: 영향원의 주장과 피험자 반응간의 차이값을 산출하여, 그 차이값이 작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다.
- ② 동조의 양: 피험자가 공적반응에서 나타난 의견 차이의 크기와 사적반응에서 나타난 의견 차이의 크기간의 차이값이 클수록 자기 의견과 차이가 큰 반응을 보였으므로 동조가 크다고 해석했다.

### 실험결과 및 논의

#### 1. 독립변인 조작효과

과제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제의 애매한 정도( $F(1, 78)=11.31, p<0.001$ )와 과제의 명백한 정도( $F(1, 78)=37.87, p<0.001$ )의 두 문항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영향원 규모는 영향원의 수( $F(2, 78)=6.84, p<0.001$ )와 비영향원의 수( $F(2, 78)=8.71, p<0.001$ )에 대한 두 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과제유형과 영향원의 크기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 2. 영향원과의 의견차이 분석

영향원이 확실성 수준에 따라서 공적동조와 사적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향원과 피험자 반응간의 차이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이 자료로부터 계산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예언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언 I에서 불확실과제의 수행상황에서는 다수나 소수의 영향이 타인반응의 영향이 없는 조건에서보다 크다고 예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다수나 소수의 반응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제집단( $M=17.02$ )과 비교했을때보다 다수( $M=14.71$ ) ( $F_{(1,26)}=26.34, P<.001$ )나 소수( $M=15.27$ ) ( $F_{(1,26)}=7.37, P<.05$ )의 오답주장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된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예언 I은 지지되었는데, 여기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지지한 결과는 소수영향을 직접 검증한데 의미가 있다.

예언 II에서는 확실성 상황에서보다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리라고 보았는데,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F_{(1,104)}=113.99, P<.001$ ).

다음으로 예언 III에서는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효과가 수행과제의 확실/불확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

<표 5> 영향원과의 의견차이에 관한 평균(표준편차)

과제유형	영향원유형	공적반응	사적반응	전체
확실과제	소수영향	16.71(2.81)	19.00(1.92)	17.86
	다수영향	18.50(2.59)	19.43(3.32)	18.97
	동수영향	18.79(3.17)	19.79(2.55)	19.29
불확실과제	소수영향	13.00(4.67)	12.36(3.61)	12.68
	다수영향	8.07(4.62)	11.64(4.52)	9.86
	동수영향	13.36(4.03)	15.29(2.97)	14.33
전체	소수영향	14.86(4.23)	15.68(4.41)	15.27
	다수영향	13.29(6.46)	15.54(5.55)	14.41
	동수영향	16.08(4.50)	17.54(3.55)	16.81



< 표 6 > 영향원과의 의견차이에 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과제 (A)	1729.29	1	1729.29	101.32***
영향원 (B)	164.62	2	82.31	4.82**
과제 * 영향원 (A * B)	152.33	2	76.17	4.46**
오차 (S/A * B)	1331.25	78	17.07	
반응유형 (C)	96.01	1	96.01	12.76***
반응유형 * 과제 (A * C)	0.48	1	0.48	0.06
반응유형 * 영향원 (B * C)	14.33	2	7.17	0.95
반응유형 * 과제 * 영향원 (A * B * C)	57.00	2	28.50	3.79*
오차 (C * S/A * B)	586.68	78	7.5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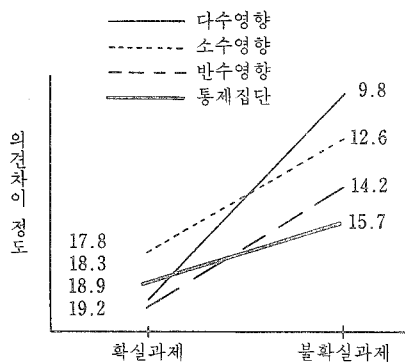


그림 1. 과제유형에 따른 영향원 유형의 효과

리라고 보았는데, 이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해서 예언 III도 지지되었다 ( $F_{(3,104)}=6.92, P<.001$ ).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및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결과는 확실성 상황에서는 영향원에 따라서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 $F_{(3,52)}=1.16, n.s$ ), 불확실 상황에서 유의한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F_{(3,26)}=9.15, P<.001$ ). 사후비교에서 보면 불확실상황에서의 이와 같은 영향원의 차이는 다수 ( $M=9.86$ )가 소수 ( $M=12.68$ ) ( $F_{(1,26)}=13.12, P<.01$ ) 혹은 통제조건 ( $M=15.27$ ) ( $F_{(1,26)}=26.34, P<.001$ )보다 영향력이 크며, 소수 ( $M=12.68$ ) 조건은 반수 조건 ( $M=14.33$ ) ( $F_{(1,26)}=4.30, P<.05$ )이나 통제조건 ( $M=15.27$ )

( $F_{(1,26)}=7.37, P<.05$ )보다 영향력이 큰데 기인된 것이다. 여기서 소수영향(구성비율 0.33)이 반수영향(구성비율 0.5)조건보다 큰 점은 단일과정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유발 등을 가정하고 있는 이중과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소수가 통제조건보다 큰 영향력을 보인것은 불확실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예언 IV에서는 집단규모에 따른 영향이 사적인 태도 변화보다 공적인 동조에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보았는데, 이 가설도 지지되었다 ( $F_{(1,78)}=12.76, P<.001$ ). 이 결과는 공개적 집단토의가 예견된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 공개될 조건에서는 영향원의 주장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만 자신의 실제 태도는 것처럼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공적태도와 사적태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조건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언 V에서 다룬다.

예언 V에서 확실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공적이거나 사적반응 모두에서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불확실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공적반응에서는 영향원의 규모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지만 사적 반응일 경우 영향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언되었다. 즉, 과제수행상황, 영향원의 규모 및 공적-사적 반응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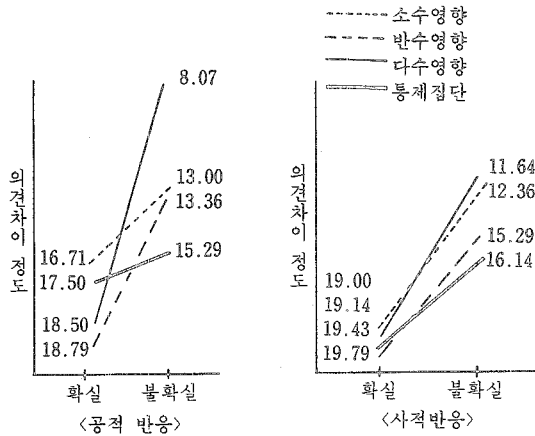


그림 2. 과제와 반응유형에 따른 영향원 유형의 효과

형에 따른 3원 상호작용이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은 지지되었다 ( $F_{(3,104)}=2.89, P<.05$ ). 이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단순주효과를 검토한 결과, 과제의 확실성 상황에서의 영향원 규모와 반응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 $F_{(3,52)}=0.65, n.s.$ )나 과제의 불확실상황에서의 영향원 규모와 반응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 $F_{(3,52)}=2.34, n.s.$ )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공적반응에서는 과제의 확실성/불확실 상황과 영향원의 규모 사이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 $F_{(3,104)}=7.67, P<.001$ ). 즉, 세부적으로 쌍대비교한 결과를 보면, 공적반응에서 다수가 반수 ( $F_{(1,104)}=7.75, P<.01$ )나 통제 ( $F_{(1,104)}=11.61, P<.00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적반응에서는 다수가 통제 보다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 $F_{(1,78)}=6.29, P<.05$ ), 소수도 통제 ( $F_{(1,104)}=5.46, P<.05$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예언 VI에서는 과제수행 상황이나 반응유형에 따라서 영향원 규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과정이론의 예언에서처럼 영향력의 규모가 통제, 소수, 반수, 그리고 다수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단일과정이론에서 예언되는 영향원 규모와 영향력 사이의 정적상관을 배척하는 예언인데, 분석결과 이 예언은 지지되었다. 즉, 영향원의 규모에 따라서 나타난 영향력을 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 $F_{(3,104)}=5.96, P<.001$ ), 영향력의 크기는 규모의 크기와 정적상관을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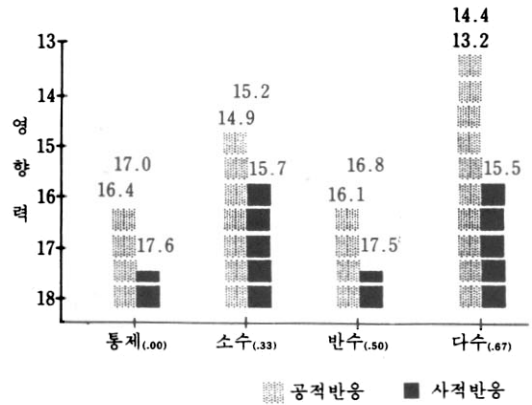


그림 3. 영향원의 크기와 반응유형별로 본 영향력

고 그림 3처럼 나타났다. 그러므로 단일과정이론은 배척되었다.

통제조건을 포함하여 영향원 규모를 달리한 세 조건 간의 전체 영향력의 차이를 사후에 쌍대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수는 통제조건 ( $t_{(26)}=3.59, P<.05$ )이나 반수 조건 ( $t_{(26)}=3.95, P<.05$ ) 영향력보다 유의하게 크다. 소수 역시 통제조건 ( $t_{(26)}=2.30, P<.05$ )이나 반수 조건 ( $t_{(26)}=2.52, P<.05$ )보다 영향력이 유의하게 크다. 이 결과는 다수나 소수의 영향력만 통제조건이나 반수 조건보다 크지 다수와 소수간에 영향력에서 직접적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여러 연구에서 다수와 소수간의 영향력 차이가 보고된 결과는 상황이나 반응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기 좋은 단일한 조건을 사용하는데 기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서 다수와 소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떠나서 이 실험에서 다른 여러 상황을 포괄하는 전반적 추세를 말하자면, 다수와 소수간에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을 합한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의 차이에 관한 분석(등조의 양)

피험자의 공적반응이 자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적 반응에서의 차이점수에서 사적 반응에서의 차이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면량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사적반응의 차이점

<표 7> 공적반응-사적반응 차이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과제유형	소수영향	다수영향	동수영향	통제집단	전체
확실 과제	10.71(3.10)	12.07(3.41)	12.00(1.11)	11.36(3.48)	11.53
불확실과제	13.64(4.40)	9.43(5.49)	11.07(4.29)	12.14(2.74)	11.57
전체	12.18(4.02)	10.75(4.68)	11.54(3.11)	11.75(3.10)	11.55

<표 8> 공적반응-사적반응 차이 점수(동조크기)에 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과제효과(A)	0.96	1	0.96	0.06
영향원 효과(B)	28.66	2	14.33	0.95
과제와 영향원(A*B)	114.00	2	57.00	3.79*
오차	1173.36	78	15.04	

차이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과과제에서는 다수영향이 소수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보였고 ( $F_{(1,78)}=8.26, P<0.05$ ), 소수영향에서만 확실과제보다 불확실과제에서 더 큰 영향을 보였다 ( $F_{(1,78)}=3.99, P<0.05$ ).

### 전체 논의

다수영향과 소수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수가 소수보다 동조 유발의 경향이 더 컸다. 다수는 반수나 통제조건에서보다 동조유발 수준이 더 컸는데, 이러한 현상은 확실상황보다 불확실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조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되는 결과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 수준이 다른 조건들을 함께 다루어서 비교함으로써 각 조건에서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의 세부적 내용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다수에 대한 동조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둘째,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모두에서 다수와 소수영향은 확실상황보다는 불확실상황에서 더 많은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상황별 불확실 수준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적반응과 사적반응의 차이(동조 크기)에 관한 분석에서, 불확실과제에서는 단일과정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향원의 수와 정적상관을 이루는 함수관계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확실과제에서는 그 역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성 수준에 따라 동조의 크기와 영향원의 수 간의 함수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영향의 효과를 설명하는데는 단일과정이론의 사회적 충격이론(Latane & Wolf, 1981)과 사회적 영향모델(Tanford & Penr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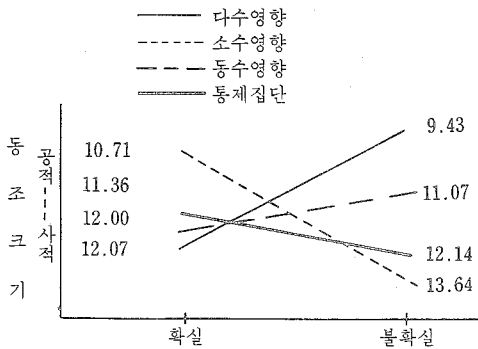


그림 4. 과제유형에 따른 영향원의 동조 효과

수는 과제유형에 따라서만 영향원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F_{(3,78)}=2.89, P<.05$ ). 즉, 이러한 사적-공적 차이점수로 볼 때 불확실과제에서는 영향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동조가 많이 나타났지만, 확실과제에서는 영향원의 수가 감소할수록 동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과제유형과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확실상황에서는 소수가 다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상황에서는 다수가 소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F_{(1,78)}=7.22, P<0.05$ ).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실과제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간에 유의한

1984)의 수학적 함수 공식에 '불확실 정도'라는 변인을 추가시킬 때,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영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째, 소수가 다수에 못지 않게 사적으로 영향을 발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즉, 조사연구에서는 소수가 다수보다 타당화과정과 정보적 영향을 통한 사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였는데, 이것은 Moscovici의 주장과 일치한다. 실험연구에서는 불확실상황에서의 사회적 반응에서 소수는 다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적 반응에서 소수가 다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한다는 Moscovici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제 1시행보다는 소수주장이 두 차례 반복된 제 2시행에서 소수영향이 더 컸다는 사실은, Moscovici의 연구 패러다임처럼 소수영향에서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사회적 반응에서 소수가 다수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발휘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네째, 실험연구를 보면, 불확실상황에서 소수도 통제 조건이나 반수영향보다 더 컸다. 이는 진실이 아닌 주장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특정한 조건에서는 소수가 아무런 영향원이 없는 통제조건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단일과정이론과는 달리, 반수보다 소수가 영향을 더 많이 발휘한 점은 소수가 확실할 것이라는 추론을 일으켰거나 일탈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장했으므로 진실할 것이라는 추론을 일으키게 기인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반수조건이 동일한 비율의 상반된 주장들을 접하는 갈등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보다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공격반응을 함으로써 최소 동조치를 보이는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수나 소수의 영향력만 통제나 반수영향보다 크지 다수와 소수간에 영향력에서 직접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한 집단에서 다수와 소수의 이분법적 대비 연구보다는 여러 영향원 집단을 연속적인 크기에 따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 문헌

- 한덕웅(1991).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5, 24-58.
- Asch, S.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 In H. Guetzkow (Ed.), *Group,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enn: Carnegie Press, 177-190.
- Asch, S.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n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9, 416.
- Doms, M. & Van Avermaet, E. (1980a). Majority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and conversion behavior: A repl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83-292.
- Doms, M. & Van Avermaet, E. (1980b). Social support and minority influence: The innovation effect reconsidered. In S. Moscovici (ed.)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
- Duncan, R.B. (1972).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3, 313-326.
- Latane, B. & Wolf, S. (1981). The social impact of majorities and minorities. *Psychological Review*, 88, 438-453.
- Maass, A. & Clark, R.D. (1984). Hidden impact of minorities: Fifteen years of minority influenc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5, 3, 428-450.
- Moscovici, S. (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New York: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347-412.
- Moscovici, S. & Lage, E. (1976). Studies in social influence III: Majority versus minority influence in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49-174.
- Moscovici, S., Mugny, G. & Van Avermaet, E. (1985).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gny, G., Papastamou, S. & Sherrard, C. (1982). *The power of minorities*. London : Academic Press.
- Mullen, B. (1983). Operationalizing the effect of the group on the individual : A self-attention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4, 295-322.
- Mullen, B. (1985). Strength and immediacy of sources : A meta-analytic evaluation of the forgotten elements of social imp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 1458-1466.
- Nemeth, C. (1986). Differential contributions of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Psychology Review*, 93, 1, 23-32.
- Nemeth, C. & Kwan, J.L. (1987). Minority influence, divergent thinking and detection of correct solu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9, 788-799.
- Nemeth, C. & Wachtler, J. (1983). Creative problem solving as a result of majority vs.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45-55.
- Nemeth, C., Swedlund, M. & Kanki, B. (1974). Patterning of the minority's respons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major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53-64.
- Sherif, M. & Hovland, C.I. (1961). *Social judgment*.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Tenford, S. & Penrod, S. (1984). Social influence model : A formal intergration of research on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95, 2, 189-225.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 Basil Blackwell.
- Van Avermaet, E. (1988). Social influence in small groups. In Hewstone (ed.),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 A European perspectives*. Basil Blackwell.
- Wolf, S. (1979). Behavioral style and group cohesiveness as sources of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381-395.

##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s under Certain and Uncertain Situations

Ji-Sook Jaung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ve validity of the single process model and the dual process model in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s through a survey research and an experimental study. We hypothesized, based upon the dual process model, that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s are moderated by the level of situational uncertainty and types of responses (public/private responses). In the survey 180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plausible situational, behavioral and causal explanations about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s under the certain or uncertain outcome conditions. In the experiment 112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8 conditions with 3 way factorial design, ie., certain/uncertain task situation(2)  $\times$  source size(4)  $\times$  public and private response with repeated measure(2).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ajority had stronger normative and informational influences compared to the equal size source or minority, especially under the uncertain task conditions. The results also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f minority on the private response under the uncertain task conditions. We interpreted the results as a supportive evidence for the dual process model, and discussed some unsolved issues in this study for further study.